

《東醫寶鑑》 雜病篇 [寒]문 傷寒 證 太陽病에 대한 고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이주혜

Historical Study on the Tai-yang Disease, SangHan of JabByong Unit of 『DongEuiBoGam』

Through studies on 『Dong Eui Bo Gam』, I have looked into what kind of books are referred to and its comcompositive characteristics of Tai-yang disease of SangHa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new try for further 『Dong Eui Bo Gam』 researches.

緒 論

《東醫寶鑑》은 金元 醫學을 도입하고 內經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나라 최초로 運氣論을 醫書에 도입하는 등의 학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원전인 《內經》에 얽매이거나, 임상 중심의 仲景 傷寒만을 쫓거나, 시대적으로 새로운 학풍인 金元四大家 만을 추종하는 것 등의 일면에만 치우치는 일은 없었다.¹⁾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藥學을 애용하여 이를 쓰기에 편하도록 하였고 자주적인 민족의학의 수립하고 실증의학에 의한 실용의학을 고취 시켰다는 점이며,²⁾ 편찬 방식에 있어서도 중국과 우리 나라의 기존 醫書의 체제를 답습하지 않

1)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96

고 독창적인 편찬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東醫寶鑑》은 현대에 있어서도 그 학술적 및 임상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

東漢 仲景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傷寒論》은 韓醫學의 辨證論治의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傷寒論》은 晉의 王叔和가 仲景 상한 조문에 대한 수집과 정리, 편찬 작업을 거친 후에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晉·唐 時期의 收集 整理단계와 宋·金 時期의 學派 形成단계, 明·淸의 發展, 隆盛 단계를 거쳐 ‘傷寒學派’가 형성되고⁴⁾, 이와 더불어 《傷寒論》에 대한 辨證論治 理法方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傷寒은 傷寒學派에서 뿐 아니라 당시 中國 醫書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傷寒의 내용은 대부분 中國醫書에서 傷寒에 관한 내용을 따로 기술하고, 매우 많은 양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東醫寶鑑》내의 傷寒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雜病篇 中 「寒」門에 넣어 그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⁵⁾ 이러한 변화는 물론 우리 나라와 중국의 기후 및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한 질병양상의 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말부터 시작된 향약에 대한 연구와 조선 개국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된 중국과의 교류에 힘입어 우리나라 자주적인 의학이 발전한 결과로 병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간과 할 수 없다.⁶⁾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傷寒이 《東醫寶鑑》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東醫寶鑑》의 傷寒에서 다루고 있는 병의 범주와 그 독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太陽病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80

3) 최근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199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권학철의 박사학위논문으로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을 비롯하여 경희대 박찬국의 ‘東醫學의 성립에 대한 研究-《東醫寶鑑》을 통하여’ 등 조선중기 의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4) 裘沛然 丁光迪주편, 中醫各家學說, 知音出版社, 台北, 民國82年 P.19-21

5)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95

6)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3

이를 위하여 《東醫寶鑑》 雜病篇 중 「寒」의 太陽病에 관한 記述을 중심으로 太陽病 내용의 근간이 되는 仲景의 《傷寒論》 및 그 외 《東醫寶鑑》 太陽病에 인용된 인용서와 각 시대에 대표적인 傷寒學派의 醫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東醫寶鑑》 太陽病 내용이 中國醫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東醫寶鑑》에서 다루고 있는 太陽病은 어떠한 범주를 포괄하며, 編纂방식과 내용상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本論

1. 太陽病證 및 處方 內容 비교

《東醫寶鑑》의 傷寒證 太陽病에 인용된 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병의 증상을 설명한 곳에서는 入門으로 기재된 《醫學入門》, 仲景이라고 표시된 중경의 《傷寒論》, 活人이라고 한 朱肱의 《活人書》가 있다. 다음에 처방을 기재한 부분에서는 처방 구성과 내용에서는 모두 入門이라고 하여 《醫學入門》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였고, 主治나, 加減에서는 醫鑑, 正傳, 本事라고 하여, 각각 《古今醫鑑》, 《醫學正傳》, 《普濟本事方》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 《傷寒論》에 대한 서적중 《東醫寶鑑》에 인용된 서적으로는 仲景의 《傷寒論》, 朱肱의 《類證活人書》, 引用書 외의 서적으로는 唐·孫思邈의 《千金翼方》, 宋代에서 韓祇和의 《傷寒微旨》, 龐安時的 《傷寒總病論》, 許叔微의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郭雍의 《傷寒補亡論》 金·元代서적으로 成無己 《注解傷寒論》 陶節菴의 《傷寒六書》를 참고하였고 《傷寒論》 전문서적이 아닌 서적 중 《東醫寶鑑》에 인용된 서적으로 明代 虞搏의 《醫學正傳》과 李梴의 《醫學入門》을 引用書가 아닌 것으로 金元四大家중 劉河間과 朱丹溪 의 서적, 明代는, 龔廷賢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을 비교하였으며, 아래 표에 그 중점적인 비교 대상 서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p>【太陽形證用藥】 太陽膀胱本病頭疼脊强小腸爲標與心爲表裏故發熱冬月麻黃桂枝湯餘月九味羌活湯 ○太陽以皮膚爲表以膀胱爲裏熱在皮膚則頭疼項强宜麻黃桂枝湯九味羌活湯熱在膀胱則口渴尿赤宜五苓散<入門></p>		
仲景 《傷寒論》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强痛而惡寒	
宋代	經絡概念 도입	朱肱 《類證活人書》
明代	太陽病의 病機를 標本과 表裏에 의하여 파악	① 《傷寒六書》 ② 《醫學入門》
<p>《東醫寶鑑》의 太陽形證用藥은 太陽病의 總論을 제시한 것인데 仲景이 제시한 太陽病의 提綱인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强痛而惡寒”의 증상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仲景 《傷寒論》에서 證狀과 脈만으로 太陽病 提綱을 세운 것에 宋代는 經絡概念이 明代 標本 개념을 첨가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東醫寶鑑》에서는 바로 이런 明代의 내용, 특히 《醫學入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東醫寶鑑》이 저작된 시대의 중국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최근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p>		

<p>【太陽傷風】 太陽傷風脉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嗇嗇惡寒淅淅惡風翕翕發熱鼻乾嘔桂枝湯主之<仲景></p>		
仲景 《傷寒論》	① “太陽病 發熱 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風” ② 太陽傷風脉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嗇嗇惡寒淅淅惡風翕翕發熱鼻乾嘔桂枝湯主之<仲景>	名爲中風의 조문대신 桂枝湯證의 조문을 선택함
成無已 《注解傷寒論》	營弱衛强	陽以候衛 陰以候榮. 陽脈浮者 衛中風也 陰脈弱者 榮氣弱也 風并于衛 則 衛實而榮虛 故發熱汗自出也. 經曰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榮弱衛强者是也.

<p>【太陽傷寒】 太陽傷寒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皆痛惡風無汗而喘麻黃湯主之 ○註曰頭痛身疼腰痛以至牽連百骨節俱痛者此太陽傷寒榮血不利故也<仲景></p>		
<p>仲景 《傷寒論》</p>	<p>太陽傷寒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皆痛惡風無汗而喘麻黃湯主之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p>	<p>麻黃湯證 조문을 선택함</p>
<p>成無已 《注解傷寒論》</p>	<p>太陽經榮血不利</p>	<p>此太陽傷寒也 寒則傷榮 頭痛身疼腰痛以至牽連骨節疼痛者 太陽經 榮血不利也</p>

<p>【太陽兩傷風寒】 脈浮緊發熱惡寒身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 ○發熱惡風煩躁手足溫爲傷風候脈浮緊爲傷寒脈是傷風見寒脈也寒多熱少不煩躁手足微厥爲傷寒候脈浮緩爲傷風脈是傷寒見風脈也蓋脈似桂枝反無汗病似麻黃反煩躁是也<活人></p>		
<p>仲景 《傷寒論》</p>	<p>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이하생략></p>	<p>太陽中風이 빠짐 : 大青龍湯의 適應證의 中心이 太陽傷寒의 證狀과 유사하다는 것을 먼저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朱肱 《類證活人書》</p>	<p>○發熱惡風煩躁手足溫爲傷風候脈浮緊爲傷寒脈是傷風見寒脈也寒多熱少不煩躁手足微厥爲傷寒候脈浮緩爲傷風脈是傷寒見風脈也蓋脈似桂枝反無汗病似麻黃反煩躁是也<活人></p>	<p>大青龍湯과 麻黃湯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大青龍湯證이 형성된 원인이 傷寒 뿐 아니라 傷風도 함께 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成無已 《注解傷寒論》</p>	<p>風寒兩傷 則榮衛俱實</p>	<p>此中風見寒脈也 浮則爲風 風則傷衛 緊則爲寒 寒則傷榮 榮衛俱病 故發熱惡寒 身疼通也. 風并于衛者 爲營弱 衛強 寒并于榮者 爲榮強 衛弱 今風寒兩傷 則榮衛俱實</p>

<p>【太陽病似瘧】 太陽病似瘧發熱惡寒熱多寒少脈微弱者此無陽也身不痒不可發汗宜桂婢各半湯 ○太陽病八九日如瘧狀發熱惡寒熱多寒少脈微而惡寒者此陰陽俱虛不可更發汗更下更吐 面色反有熱色者未欲解也以其不能得小汗出身必痒宜桂麻各半湯<仲景></p>		
<p>仲景 《傷寒論》</p>	<p>太陽病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無陽也 不可發汗 宜桂枝二越婢一湯 太陽病 得之八九日 與瘧狀 發熱 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 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脈微而惡寒 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也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 得少汗出 身必痒 宜桂枝麻黃各半湯</p>	<p>桂婢各半湯은 없고 桂枝二越 婢一湯증과 동일</p>
<p>成無已 《注解傷寒論》</p>	<p>表裏俱虛한데 表邪未解한 것으로 봄</p>	<p>… 脈微而惡寒者 表裏俱虛也 … 陰陽俱虛 則面色青白 反 有熱色者 表未解也</p>

<p>【太陽蓄血】 太陽病六七日表證因在脈微而沈反不結胸其人如狂者以熱在下焦小腹當滿小便自利 者下血乃愈抵當湯主之<仲景> ○太陽證俱在而脈反沈兼發狂小腹硬者宜用此藥(方見下)</p>		
<p>仲景 《傷寒論》</p>	<p>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 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p>	<p>熱在下焦와 發狂이 초점</p>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太陽傷風, 太陽傷寒, 太陽兩傷風寒, 太陽似瘧, 太陽蓄血證등은 모두 仲景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病證의 감별, 진단, 치료에 대하여는 각 의가의 견해가 仲景의 원문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기본이 되는 仲景의 원문을 인용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두 번째로 《東醫寶鑑》太陽病의 處方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두 《醫學入門》의 구성과 용량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할 점은 桂枝麻黃湯이나, 桂婢各半湯과 같이 명칭이 달라도 같은 主治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소개된 《醫學入門》의 처방과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桂枝麻黃湯은 桂枝二麻黃一湯의 처방내용과 桂婢各半湯은 桂枝二越婢一湯의 처방내용과 동일하다.

둘째, 처방 내용은 모두 《醫學入門》에서 취하고 있지만, 주치증이나, 가감에 있어서는 보다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책들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桂婢各半湯, 桂麻各半湯등을 《東醫寶鑑》에서는 似瘧의 처방이라는 설명 없이 ‘治太陽病脉微身不痒’, ‘治太陽病脉微身痒’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이는 《醫學入門》과 달리 주치증을 매우 간략하게 요점만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치를 다르게 한번 더 설명한 것은 處方에서도 치료가능한 증상을 알 수 있게 하여 보고 쓰기 편리한 實用書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인용서인 《醫學入門》의 主治證과 다른 것은 《醫學入門》의 보기에 불편하며, 앞의 太陽病證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많으므로, 역시 實用書로서 《東醫寶鑑》의 성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九味羌活湯이 다른 처방보다 加減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는 다시 고찰하여 볼 점이 있는데 첫째는 九味羌活湯이 사계절에 모두 사용가능하고, 麻黃湯이나 桂枝湯을 쓸 때 주의할 점에 별로 구애되지 않는 처방이므로, 널리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는 九味羌活湯을 太陽病을 치료하는 처방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九味羌活湯 處方의 형성 배경 및 처방구성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서 다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넷째, 五苓散이나 抵當湯은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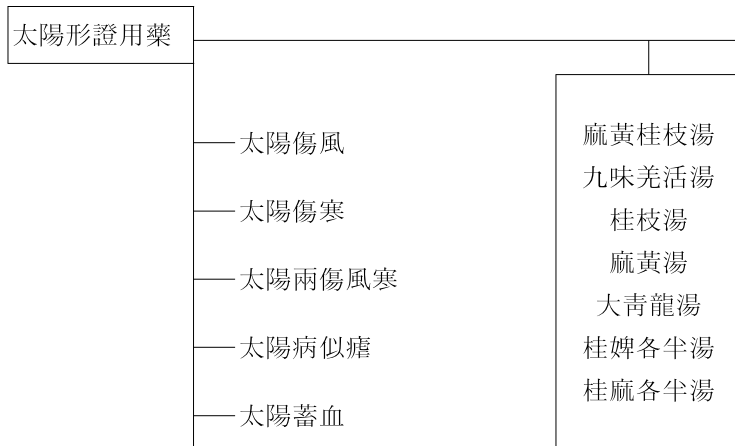
病證에는 처방명이 나와 있는 五苓散이나, 抵當湯은 처방내용이 太陽病에 나오지 않고, 뒤의 寒下의 上寒의 여러 病證들을 열거한 부분에 나오고 있다. 또 太陽病에 기술된 처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桂枝와 麻黃이 들어간 처방들이다. 이로 보건대, 《東醫寶鑑》 太陽病에서는 桂枝와 麻黃이 주로 치료하는 증상을 太陽病의 主證으로

보고 중경 《傷寒論》太陽病에 실린 다른 증상은 太陽病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I. 東醫寶鑑 太陽篇 編纂特徵

《東醫寶鑑》에서 傷寒의 太陽病의 내용을 보면 우선 太陽形證用藥으로 太陽病에 대한 강령을 세워 놓고, 그 아래에 太陽病으로 진단 치료하여야 하는 病症으로 太陽傷風, 太陽傷寒, 太陽兩傷風寒, 太陽病似瘧, 太陽蓄血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太陽病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麻黃桂枝湯, 九味羌活湯, 桂枝湯, 麻黃湯, 大靑龍湯, 桂婢各半湯, 桂麻各半湯을 싣고 있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太陽病의 大綱을 形證用藥으로 실은 후 太陽病으로 간주하고 치료해야하는 증상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증상위주로 편찬하여 증상 명으로 병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아래에 다시 該當 病의 處方만을 모으고 처방의 구성은 물론 처방에 따른 主治와 加減도 함께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千金翼方》등에서 보이는 湯證 위주로 證狀을 나누고, 그 아래에 유사한 條文을 묶어서 실는 “比類相附”의 방식과도 차이가 있으며⁷⁾, 宋代 《傷寒總病論》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六經의 증상과 함께 可汗, 可下, 不可汗, 表解 등 治法으로 다시 분류하여 놓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⁸⁾. 또한,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처럼 조문을 순

7) 孫思邈著, 錢超塵主編, 千金翼方詮譯, 學苑出版社, 북경 1995

서대로 나열하지도 않았다.⁹⁾

아울러 《東醫寶鑑》 太陽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醫學入門》과 비교하여 보면, 《醫學入門》에서는 六經病을 太陽 陽明 등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병을 다시 標本과 榮衛 經證과 腑證 등으로 설명한 후, 五法이라 하여 表裏陰陽 및 汗 吐 下 溫 補 등의 治法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다시 六經 병의 구분을 두지 않고 증상별로 논하고, 마지막으로 傷寒用藥賦로 전 처방을 실어 놓고 있으므로¹⁰⁾, 이 역시 위의 표와 같은 《東醫寶鑑》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 외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인용서 중 《活人書》와 비교하여 보면, 《活人書》는 傷寒一日부터 七日까지로 나누어 六經病을 설명하였고, 다음에 脈에 대하여 실은 후 病을 우선 表證과 裏證으로 나누어 실어 놓고 있다¹¹⁾. 따라서, 《東醫寶鑑》에서 다루고 있는 太陽病의 범주가 表證에 국한되어, 병의 기준을 우선 表裏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病을 表裏로 나누어 본다는 견해로 본다면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서적으로 《東醫寶鑑》 바로 전에 지어 졌으며 편찬에 같이 참여한 楊禮壽가 저술하여 《東醫寶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醫林撮要》와 비교하여 본다면, 《醫林撮要》는 편제상 증상이나 강령 별로 나누어지지도 않았고, 내용상 六經病을 각각 논하지 않았다 아울러 처방에서도 《東醫寶鑑》과 같거나, 유사한 처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¹²⁾. 이로써 살펴보면 저자가 《東醫寶鑑》 편찬에 참여하였고, 지어진 시기도 《東醫寶鑑》 바로 이전이므로, 《醫林撮要》의 영향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傷寒의 太陽病에서 특별히 영향을 준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로 보건대 《東醫寶鑑》에서 기술하고 있는 太陽病의 편차 방식은 어느 서적의 편제도 답습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편찬방식을 취한 《東醫寶鑑》의 이러한 내용은 仲景의 《傷寒論》과 차

8) 龐安時, 傷寒總病論,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9

9) 成無己, 注解傷寒論,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9

10) 李梴, 醫學入門, 대성출판사 서울 1994

11) 朱肱著, 권건혁역, 국역활인서 반룡 1999

12) 楊禮壽 韓國醫學大系8-醫林撮要, 여강출판사, 1994 pp.148-149, pp.158-159

이가 있다.

仲景의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의 범주에 太陽病의 脈證提綱을 비롯하여 《東醫寶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외에 熱證으로 梔子豉湯證類, 麻黃杏仁甘草石膏湯證, 白虎加人參湯證, 葛根黃芩黃連湯證, 黃芩湯, 黃芩加半夏生薑湯證과 虛寒證으로 볼 수 있는 桂枝甘草湯證, 桂枝甘草龍骨牡蠣湯證,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證, 桂枝加桂湯證, 茯苓桂枝甘草大棗湯證, 茯苓桂枝白朮甘草湯證,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證, 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證, 小建中湯證, 桂枝人參湯證, 乾薑附子湯證, 茯苓四逆湯證, 眞武湯證, 등과 五苓散證인 蓄水證, 結胸證인 大陷胸丸證, 大陷胸湯證, 小陷胸湯證 그리고 瀉心湯證 등 훨씬 넓은 범위의 病證 까지도 포괄하고 있다.¹³⁾

이러한, 仲景의 《傷寒論》 太陽病에 포함된 원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東醫寶鑑》 太陽病에서 다루고 있는 太陽病의 내용은 桂枝, 麻黃을 중심으로 하여 치료 가능한 증상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東醫寶鑑》에서 다루고 있는 太陽病의 범주는 桂枝, 麻黃 위주의 처방이 치료 가능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東醫寶鑑》에서는 病을 肌膚에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表, 肌膚보다 내부의 病을 裏病이라고 본다면 그 중 表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太陽病 이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仲景 《傷寒論》에서는 桂枝, 麻黃 중심의 처방이외에 瀉心湯證類, 陷胸湯證類 등을 太陽病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肌膚에 국한된 증상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는 孫思邈의 《千金翼方》에서 비롯된 ‘三綱鼎立’ 학설과의 연관성으로 살펴 볼 수도 있다. 비록 《千金翼方》이 《東醫寶鑑》의 太陽篇에서 직접적인 인용서는 아니지만, 《千金翼方》에서 “夫尋方之大意 不過三種 一則桂枝 二則麻黃 三則青龍 此之三方 凡療傷寒 不出之也” 라고 하여 桂枝, 麻黃을 중심으로 한 桂枝湯, 麻黃湯, 大青龍湯의 三法을 중시한 것과 桂枝 麻黃을 중심으로 하고, 먼저 桂枝湯, 麻黃湯, 大青龍湯을 내세운 《東醫寶鑑》의 太陽病에 관한 내용은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結論

이상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3) 李培生主編, 傷寒論,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7

1. 《東醫寶鑑》太陽病의 구체적인 내용은 標本으로 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形證用藥이나, 처방구성은 明代의 의학 특히 《醫學入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太陽病의 범주에 포함시킨 증상은 仲景의 원문을 인용함으로써 진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2. 처방에서 구성된 약재나 용량은 비록 《醫學入門》의 내용과 같으나 그 주치증은 《醫學入門》보다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고, 앞의 병증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인용서적이나, 기술이유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3. 九味羌活湯을 특별히 太陽形證用藥의 약으로 내세우고 약물하나한의 효능과 가감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실용서로서의 《東醫寶鑑》의 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九味羌活湯 자체에 대한 자세한 고찰로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편찬 차례와 편찬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책도 답습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太陽形證用藥으로 太陽病의 대강을 정하고, 그 아래 太陽傷風 太陽傷寒, 兩傷風寒, 太陽病似瘧, 蓄血證 太陽病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을 다섯 가지 범주로 규정한 후 다시 處方을 적되 主治와 加減을 아울러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5. 《東醫寶鑑》은 太陽病을 桂枝, 麻黃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증상 즉 頭痛 發熱 惡寒 중심의 뚜렷한 表證을 위주로 한 증상을 太陽病의 범주로 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東醫寶鑑》太陽病에서 주로 桂枝 麻黃을 중심으로 한 桂枝湯, 麻黃湯, 大靑龍湯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인용서는 아니지만 《千金翼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